

- 녹취록 -

프랑스통일전선과 중남미변혁 그리고 인터내셔널

발표 : 크리스토프 병쥬하(Christophe Ventura) 프랑스좌파당 국제위원장

토론 :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호석 미주 통일학연구소 소장

이재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 :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덕원 : 오늘은 중남미변혁과 인터내셔널이 초점이다. 프랑스에서 실력있는 중남미변혁 전문가인 크리스토프 병쥬하의 발표다. 지난번에는 프랑스좌파당(PG)의 창당과정, 정책, 최근 유럽의회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에 대해 토론했다면, 오늘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알바(ALBA)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남미변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인터내셔널에 대한 구상을 토론할 것이다. 병쥬하의 구상이면서도 좌파당의 구상이고, 단순히 구상단계를 넘어 상당히 진행됐다. 메모하 드 뤼페, 르몽드디플로마티크편집국, 좌파당, 그리고 그 이전에는 베르나르 까쌍과 브라질노동자당(PT)이 주도해 만든 세계사회포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해 브라질노동자당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취하며 보인 한계가 분명한 조건에서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변혁의 바람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인터내셔널구상에 대한 병쥬하의 해설이다. 인터내셔널은 우리의 중요한 실천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세계진보 정당들의 국제연대에 매우 중요한 자리다.

“중남미변혁에서 발견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힘의 관계들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

병쥬하 : 남미지역 혁명의 상황과 프랑스좌파당과 남미의 연대관계, 인터내셔널 건설에 대해 설명하겠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유럽에서는 그 사건을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로 생각했다. 실제로 이후 20년 동안 세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래했고 그 모순들이 축적된 가운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전세계적인 위기이다. 이데올로기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진보세력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운동세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이 위기를 통해서 나타난 모순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남미의 경우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투쟁의 가치를 가장 드높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중남미의 운동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의 모습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실험대가 되었던 남미의 기원은 칠레에서 시작되었던 쿠데타에서 볼 수 있다. 마치 의사들이 환사를 두고 실험을 하듯이 남미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메커니즘이 25년동안 실험되었다. 이 기간동안 남미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미가 겪었던 고통들이 지금의 혁명적 기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 남미는 대중운동을 통해 새로운 남미의 얼굴을 전세계에 알렸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당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남미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남미의 새로운 사이클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남미의 두번째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 해로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우리는 세계에서 남미의 영향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분열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2002년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를 이겨낸 차베스정권은 신자유주의적인 위협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에 이런 새로운 힘의 원천을 가지고 새로운 단계의 혁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남미 대부분의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좌파정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브라질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남미의 정책들에 대해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식량자주권을 보호하는 농업정책을 비롯해 미국 등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대외정책 등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제도들을 마련했다.

또한 남미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연대적 관계로 국가간 관계를 전환했다. 볼리바리안대안을 대표하는 알바에서 볼 수 있듯이, 남미에서의 국가관계는 점점 더 여러분야로 확대되었다. 알바에는 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남미에서의 국제적 연대를 발판삼아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국제적 연대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연대에서 발견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힘의 관계들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힘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인 많은 부분들을 바꿔낼 수 있다.

“프랑스좌파당은 남미를 모델로 하는 진보적인 국제연대 실현을 꿈꾼다”

남미의 좌파정당들은 아주 젊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젊은 정당들의 역동성이 바로 변혁의 힘을 실어 주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정당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프랑스좌파당은 남미의 젊은 당들과의 연대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자 한다. 우리 당은 남미의 정당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정치적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프랑스좌파당은 남미 정당과의 연대에서처럼 국제적으로 함께 연대할 진보정당을 찾고 있다. 프랑스좌파당의 고민은 지난 15년간에 나타난 새로운 좌파당들과의 국제적 연대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제까지의 인터내셔널은 그 존재감을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내셔널 이후의 모습을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좌파당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인 기구, 즉 진보정당, 노동조합, 비정부기구(NGO)가 협력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구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진보하는 새로운 국제시대가 도래하는 흐름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안에서 국제적인 포럼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포럼을 구성하는 데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자의 다른 점들을 이야기하기보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기적으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첫번째 과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아마도 정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프랑스좌파당의 존재이유중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이런 국제적인 연대에 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

프랑스좌파당은 민주노동당은 물론 독일좌파당(DIE LINKE)과의 토론의 장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국제연대는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남미를 모델로 하는 진보적인 국제연대 실현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여러분과의 만남에 마음깊이 감사드린다.

조덕원 : 통역을 잘했다는 말을 통역자가 생략한 것 같다. 사회 잘했다는 소리는 없다. (웃음) 인상깊은 발제를 해주신 병츄하씨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남미 변혁에 대해서 아주 요령 있게 요약하면서 ‘반신자유주의 기치로 모이고 있는 새로운 흐름의 결실로써 인터내셔널을 건설하자, 좌파당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다. 그럼 민주노동당 미주동부위원회 위원장이신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소장님과 민주노동당 세세상연구소 김장민 연구위원의 질문과 의견,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

자주의식화와 반제노선, 국제사상운동의 새로운 물결로

한호석 : 올해 10월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20년 되는 시점이다. 아까 병츄하가 이야기한대로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전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사상적 위기였다. 이 사상적 위기가 베를린장벽붕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걸 뒤집으려면 전세계 좌파운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상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사상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말은, 기존의 국제좌파운동, 국제사회주의운동이 알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의미를 어떻게 다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어떻게 재해석 할 것인가. 국제좌파운동, 국제진보운동,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출발이 여기서 부터라고 시작된다고 본다. 바로 여기서 두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먼저 왜 우리가 베네수엘라 혁명에 주목하는가, 왜 전세계 좌파들이 베네수엘라 혁명운동에 주목하는가에 대해서다. 바로 여기서 두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 싶다. 베네수엘라 혁명운동에서 사상적 근원을 극복할 수 있는 두가지 요인이 보인다. 하나는 대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것이다.

대내적인 것은 기존의 이른바 현실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다. 현실사회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을 베네수엘라 혁명운동에서 보았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구체적인 정치적 참여,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주의식화’가 시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과 생활현장에서 민중 스스로의 소규모단위 조직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주의식화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 일어서는 새로운 흐름이다. 이것이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흐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대외적인 것은 이른바 반제국주의운동이라고 하는 진원지로서 라틴아메리카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소련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이 반제노선을 내걸었지만 점점 무너져갔다. 그리고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반제노선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것을 다시 뒤집는 운동이 베네수엘라 혁명운동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의미의 인터내셔널, 국제사상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려면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연대로 발전해야 되는데,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두가지 지점의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사상적인 상호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국제좌파운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 프랑스의 좌파당, 독일의 좌파당, 코리아의 민주노동당,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집권당들이 서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운동이 21세기 새로운 변혁운동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결로 전세계에 파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츄하 : 전적으로 동의한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이 이전에 있었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의 극복을 해냈다는 것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좌파정당들이 이런 이데올로기차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기위해서 저는 우선 같이 모여서 단결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알바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의 체제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김장민 : 나는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제기하겠다. 남미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두가지로, 집권과 국제연대에 있다고 본다. 집권 모델은 당, 전선, 대중단체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것이고, 국제연대 모델에서는 경제공동체에서 국가연합까지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것이다. 경제공동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남미나 아시아 등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대안적인 부분까지 발전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서 자원이라든지 생산과 소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필요하다. 또 지역 내에서 평등한 무역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쌍방간 대외관계가 설정될 텐데,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어렵지 않냐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친화적인 산업구조가 되어야 대안적인 차원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남미, 아시아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처지와 과제들이 다르다. 하기에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프랑스좌파당이 여러가지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조덕원 : 이어서 잠깐 설명하면, 우리의 상황에서는 당장의 사회주의 모델보다는 미제국주의로부터의 자주, 분단된 나라의 통일, 민주주의 이런 과제가 중요하다. 이것을 모두 모아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는데, 공동의 의제와 관련해서 반신자유주의와 함께 반제국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병츄하 : 지역친화적인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알바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알바의 노력을 통해서 각 국가간의 진정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 알바는 일단 내수시장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확립하고, 이 토대위에서 외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알바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의 논리, 즉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유무역체제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각 지역의 상황들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알바가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바가 보여준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코리아 등 각 지역에서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같이 연대에서 함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프랑스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통의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문제, 국제적·사회적 규범들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제제, 국제금융기구(IMF)의 횡포, 유엔(UN)의 잘못된 운영체제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새로운 힘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해서 새롭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프랑스좌파당이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은 프랑스좌파당이 실제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만남들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장에서 만나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첫번째 제안이 될 것이다. 물론 남미지역과의 연대관계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도 제안할 수 있다.

조덕원 : 주어진 시간이 지났다.

제2의 베를린장벽 붕괴를 선언하자

한호석 : 한마디만 하겠다. CNN방송을 보면 베를린장벽붕괴 20주년을 기념해서 큰 행사를 한다. 베를린장벽을 붕괴시킨 장본인들은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전세계 진보진영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유럽 진출이 조금 일찍되서 프랑스좌파당과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가 올해 10월에 베를린장벽에서 아마 새로운 국제진보운동을 시작하는 정치행사를 가질 수 있었을 거다.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1989년이후에 창당된 전세계진보정당의 국제회의를 제안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국제진보운동의 출발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경비인데 (웃음),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사회당이 부담하고, 베를린이 독일 아닌가. 독일사회주의운동이 반성해야 하니까, 주최는 독일좌파당인 디링케가 하고 경비는 베네수엘라 집권당이 내고 프랑스좌파당이나 민주노동당 등이 모여서 내년 10월에 한번 하자 이거다. 내일 튀마니떼축제장 베네수엘라부스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채연 : 기념하는 김에 우리가 신베를린장벽의 붕괴라고 선언을 해야한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거꾸로 다시 그 무너진 베를린장벽이 다시 무너졌다.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새로운 대안의 승리를 위한 선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호석 : 제2의 베를린장벽 붕괴를 선언해야 한다.

병췌하 : 방금 제기된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좌파당에 분명한 보고를 하겠다. 물론 여러가지 경비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전세계 진보정치운동세력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아직도 견재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

조덕원 : 매우 중요한 토론이다. 이것이 바로 포럼이고, 파리포럼의 정신이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크리스토프 병췌하는 포럼 마지막날 당·전선토론회의 토론자로도 참여한다. 큰 박수 바란다. <끝>